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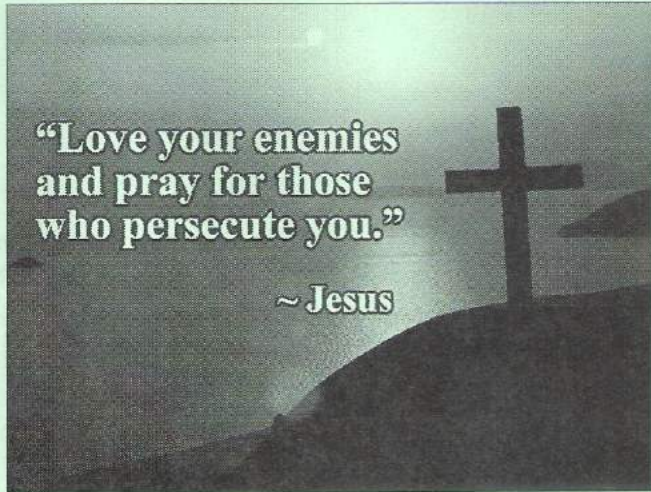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7주일
제37권 13호(가해) 2017년 2월 19일

[묵상]



△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

보복이나 복수하려는 마음의 뿌리는 분명 미움에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를 미워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마음이나 행동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떨쳐버리고 벗어나고 싶어
하느님께 기도 중에 도움을 청하였을 겁니다.

바로 미움은 스스로 노예됨이며,
스스로 종살이를 자청하는 것과 같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움의 대상을 만나거나
그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끌려 다니며 속박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러한 종살이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 주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미 해방된 분,
가장 완전한 자유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며,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용기와 희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

petrus3@hanmail.net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에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오후 1:00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 ~ 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수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목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금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토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주임신부 : 오창근 페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 이웅식 베드로, 서성용 베드로 (생)
주일 학생	(연) 박종무 바르톨로메오, 김정강 세실리아 (생) 김윤빈 올리아, 박인규 요셉 & 박인수 프란치스코
주일 낮 미사	(연)오원순 안나, 송기분 수산나, 고준희 제임스, 현시영 요셉, 정동점 마리아,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레이몬드, 김정례 수산나, 변 안드레아 & 변올리안나, 연옥영혼, 정기범베드로 & 오은준 세실리아, 황주호요셉, 최천옥 딸가리다, 정윤요셉, 이강희 윤일요한 & 박덕기 카타리나, 오창섭, 윤재립 마리아, 정영무, 이종순 로레스 사제 (생)손석 스테파노, 박정미 클라라, 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황윤재 베드로 가정, 한장환 안토니오, 김베드로, 오상준 토마스, 최재은 베드로 & 최길숙 요세피나, 이형삼 요셉, 빅토리아 리, 김인식 마누엘라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레위기(Leviticus) 19,1-2,17-18

화답송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기록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이 가여워하시네.○

제 2독서 코린토1서(1Corinthians) 3,16-23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복음 마태오(Matthew)5,38-48

영성체송 주님의 기적들을 낱알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한국 교회의 역사

제3부 한국 교회와 현대 사회(1945-1999년)

4. 현대 교회의 좌표(1984-2000년)

4-1. 신자·수도자·성직자

이 시기의 한국 교회는 세례 받은 신자들의 재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였으니, 1984년 천주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신자의 23.4%에 해당하는 약 45만여 명이, 1999년에는 전체 신자의 31.7%에 해당하는 약 125만여 명의 신자들이 거주 불명자 등 냉담자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이 냉담자의 비율이 30%를 넘는 현상은 현대 교회에 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특성은 교구 중심의 사목 활동으로, 이 시기 신자 수가 증가하면서 본당 숫자도 증가하여, 1984년도 한국 교회 본당 수는 673개였지만 1998년에는 1,147개로 늘었다. 그럼에도 본당 평균 신자 수는 1984년도의 2,747명에서 1999년에는 3,317명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본당 내 신자 수는 도시와 농촌에 따라서 큰 차이를 드러내는데, 대도시에서는 본당 신자 수가 1만여 명이 넘는 거대 본당이 속출한다. 전통적으로 소규모 신자 공동체이던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신자들의 급작스런 팽창은 사목적 배려에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한국 교회 성직자는 1984년 이후 1999년에 이르는 기간 꾸준히 증가하는데, 1998년 말 현재 한국에 있는 성직자는 모두 2,800명(한국인 2,606명, 외국인 194명)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 선교사가 363명에 이르던 1970년도 이래 한국에서 외국인 선교사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 성직자 중 46%에 달하던 1962년도 이후 외국인 선교사들의 비율은 급속도로 감소하였다. 그리하여 1999년도에는 전체 성직자 중 외국인 성직자의 비율이 6.9%로, 한국인 성직자의 비율이 93.1%로 증가한다. 해방 당시에는 5개의 대목구 가운데 3개 대목구를 외국인 선교사가 관장하였으나, 1999년 남한 교회에는 3개 대교구와 12개의 교구를 한국인 주교 또는 보좌 주교가 관할하고 있다. 한편 현대에 이르면서 한국에서는 수도회의 활동이 매우 강화되어 가는데, 1984년 28개이던 남자 수도 단체가 1998년에는 43개로 증가한다. 여자 수도 단체도 44개에서 93개로 증가한다. 수도자 숫자도 이에 비례하여 늘어, 남자 수도자는 246명에서 1,145명으로 4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여자 수도자는 3,931명에서 8,290명으로 210% 증가한다. 수녀들 가운데 상당수는 본당에서 전교 활동을 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수도자들이 국내의 교육과 사회 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부는 외국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해외에 파견되어 봉사하고 있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49	249	249
봉헌	261	261	269
성체	309	309	307
파견	216	216	216

죄와 벌 그리고 용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맥 빠지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뻔히 잘못을 저지른 원수를 무조건 사랑하라고만 하시니, 하느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던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계명을 통해, 죄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금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가톨릭 교회에서 ‘천사적 박사’로 칭송 받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자신의 철학과 신학을 집대성한 <신학대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처벌을 하는 이의 의도가 처벌받는 이의 고통과 손해로만 향해있고 그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면, 이는 하느님의 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 하지만 처벌하는 이의 의도가 죄인을 벌 줌으로 해서 생겨나는 어떤 선(이를테면 죄인의 개선이라든지, 죄인을 속박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방해 받지 않게 하는 것이라든지, 정의를 지키기 위함이라든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라든지)을 향한 것이라면, 처벌은 정당하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IIaIIae, q.108, a.1)

또한 죄에 대한 적합한 처벌은 덕스러운 행동이기도 함을 강조하면서, 아퀴나스 성인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 못지않게 죄에 대한 처벌을 태만하게 하는 것 또한 부덕함의 소치임을 주장합니다.(IIaIIae, q.108, a.2)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죄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금지하는 말씀으로, 혹은 누군가의 죄와 악행을 모른 척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설픈 관용으로 처벌을 주저하거나 죄를 묵과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랑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일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무디어져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하느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적합한 처벌에 따르는 고통과 손해를 겪으며 정신을 다시 차리는 것만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의 길로 다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오로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히브 12,6)고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제1독서에서도 주님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인양되어야 하고, 거짓은 밝혀져야 하고, 죄를 지은 이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의 처벌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복수심만으로 가득 차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의 사랑의 법에서 멀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처벌을 통해 죄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느님과 화해하여 참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내가 못하는 것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영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어에 원한이 다 생겼습니다.
요즘은 선한 사람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공부에 비할까 영어에 비할까,
몹시 부럽습니다.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민상 요한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이순자 비비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동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정진옥 노엘	유지아 클라라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혜경 레나타	정인옥 아오스딩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한경숙 안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제물봉헌자			토서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재의 수요일에 사용할 성지 회수
오는 3월1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재의 수요일'에는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쓰이는 재는 지난 해 나뉘드린 성지를 태워서 사용합니다.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를 2월26일(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 2월 요셉회 모임
 - 일시: 19일 (오늘 주일) 11시 미사 후
 - 장소: 강당
 구운을 맞으신 한장환 안토니오형제님께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셨으니 부부 동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연락처: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 2017년도 Steubenville San Diego 신앙대회
 - 일시: 7월 28일 ~ 7월30일(2박3일)
 - 장소: University of San Diego
 - 대상: 현재 8학년 ~ 12학년까지
 - 등록기간: 2월 5일 ~ 3월 5일
 - 등록비: \$ 200 (할인된 등록비 1인당 기준)
 - 등록 서류는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Pay to :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 문의: 황선준 플로렌시오, 310-658-6654
- ◆ 백삼위 주일학교 중등부 사순피정
 - 일시: 3월 17일 금요일 - 3월 19일 일요일 (2박 3일)
 - 장소: 테메쿨라 꽃동네 (37885 Hwy. 79 South, Temecula, CA 92592)
 - 대상: 중등부, 고등부
 - 등록기간: 2월 12일 ~ 3월 12일

- 등록비: \$ 60
- * 주일학교 중등부 사순 피정기간에 함께 봉사할 봉사자 모집합니다.
- 문의: 황선준 플로렌시오 ☎ 310-658-6654
- ◆ 2017년 11월 SAT II 한국어 시험 대비반 개강
 - 일시: 2월 5일~6월 18일
 - 자격: 현재 8 학년 이상 등록 가능
 - 등록비: \$ 200 (교재 및 기타 자료 포함)
 - 장소: 한국학교 교무실
- ◆ 2017년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I, II)
 - 시험일시: 2017년 4월 15일
 - 시험장소: LA 한국교육원
 - 접수마감: 2월 14일까지
 - 응시수수료: TOPIK I - \$ 25, TOPIK II - \$ 30 (단 2월 12일까지 백삼위 한국학교로 접수하는 학생인 경우는 무료)
 - 문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주일학교 & 한국학교에서 성실히 봉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이메일: 103skccs@gmail.com
- ◆ 오늘주일(19일)은 프레지던츠 데이 연휴로 주일학교, 한국학교는 수업이 없습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2월 19일: 쇠고기 무국 (\$3토남1,2반)
*주일학교: 수업 없음
 - 2월 26일: 육개장 (\$3PV1,4반)
*주일학교: 치킨 까스 (6 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김광자 김병학 김상근 김순옥 김양금 김여순 김옥찬 김 옥 김원모 김원호 김윤진 김재희 김정선 김정희 김충섭 나경흠 남명자 류현옥 박광자 박운모 박정자 반비오 서용숙 손 석 신경훈 안태갑 양영관 오신재 원건희 위진록 이근태 이영희 이은경 이은록 이종필 이형삼 전정일 조소영 최기호 최진수 호경진 홍인표 황지영 한길선례	성전헌금	강태홍 김광자 김병학 김양금 김원모 김윤진 김재희 김정선 김정희 김충섭 나경흠 남명자 박광자 박정자 반비오 서용숙 손 석 신경훈 안태갑 양영관 원건희 이근태 이영희 이은록 이형삼 최기호 최진수 황지영 한길선례
	합계: \$ 4,470		합계: \$2,155
주일미사헌금: \$ 2,487		주일학교: \$60	성물판매이익금: \$ 2,140.06

남가주 소식

◆한국의방선교회 멕시코 캄페체 선교지 방문단 모집

- 방문일정 2/23(목)-2/28(화)
- 방문지 : 멕시코 캄페체
- 활동 : 미사 봉헌과 문화탐방
- 연락처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 작은 예수회 사순시기 신구약성경 완독회정

- 일시 : 3월1일~4월17일,매일 오전10시~오후1시
- 장소 : 작은예수회 소성전(공동체 상황상10명만 신청받습니다)
- 김그라시아수녀 ☎ (213)820-6535

◆ 제 18차 ‘청실홍실’ 행사 안내

- 결혼 적령기 자녀들의 ‘짝짓기’를 위한 ‘부모들의 만남의 장’인 제 18차 청실홍실 모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시간 : 2017년 3월 12일(일) 오후 5시 ~ 9시
 - 장소 : 엘에이 옥스포드 호텔 745 S. Oxford Ave, L.A)
 - 참석자 : 결혼적령기를 맞은 자녀를 둔 부모님 (자녀와 함께, 혹은 자녀 혼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 회비(식대포함):\$100 (두 사람\$150 - 세 사람 \$200)
 - 주관 : 남가주천주교 한인종신부제협의회, '청실홍실' 운동 본부
 - 연락처 :이메일<chungsilhongsil@gmail.com>
전화(714)530-3111
 -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분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 37기 성 아그네스 성당 커피교육

- 강의 : 2017년 2월26일(주일) 낮 1시~5시
27일(월)저녁 6시~10시 중 하루
- 교육방법 : 첫날 3시간강의, 1시간실습
첫 교육후 10회실습
- 교육비 : \$200(당일 지불)
- 장소 : 성아그네스성당 회의실
1451 Dana St. LA,CA 90007
- 문의 : 성당사무실 (323) 731-4433
E-MAIL : ignhanddrip@gmail.com

소공동체 2월 반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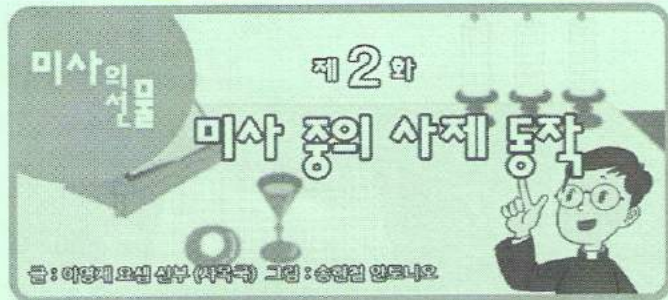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제 메히틸다 713-4926	김광자 엘리자벳 02/15(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한장환 안토니오 02/11(토) 오후6시 미쿠리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02/17(금)오후7시30분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강인모 테오도시오 02/11(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이 크리스 02/11(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현숙 벨라렛다 02/19(일)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02/19(일)오후3시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02/13(월)오전11시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전하현 마리아 02/11(토)오후6시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서용숙 에스텔 02/13(월)오후6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818)640-9171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주대중 다니엘 02/11(토) 오후7시 성당2층R3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혜나 베네딕타 384-3289	이윤무 스테파노 02/10(금)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김관기 라파엘 02/11(토)오후6시
	3	신혜정 토사 213-369-0687	김명 베드로 02/17(금) 오후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한애경 올리아나 02/14(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요셉회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사목회의	1시
------	----



글: 아담에 요셉 삼부 (사작가) 그림: 송원진 일드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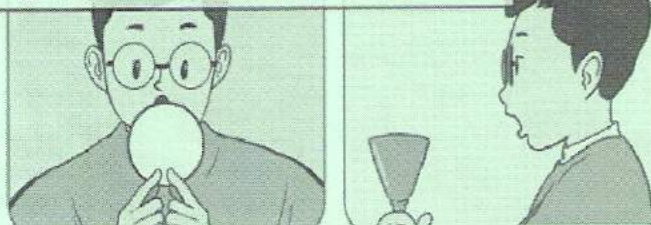
제대 인사

제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대를 향한 인사는 대사제이신
주님께 깊은 감사와 찬미를 표현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높이 들고 바치는 감사기도

우리가 봉헌하는 빵과 포도주가
우리 구원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도록 감사의 기도를 바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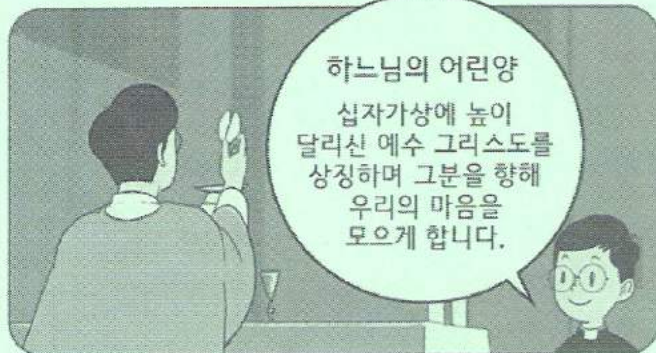


마침영광송

성체가 담긴 성반과 성혈이 담긴
성작을 높이 들어 올리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십자가상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성찬례를
봉헌하는 사제의 동작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까요?

헉 헉

맞아요.
동작의 의미가
궁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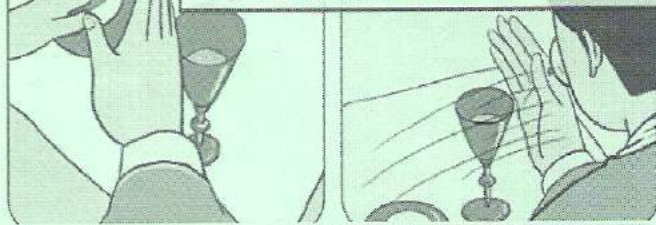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팔을 벌림은 초대와 포용을 표시합니다.
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하며 그들을
끌어안고자 하는 바람의 표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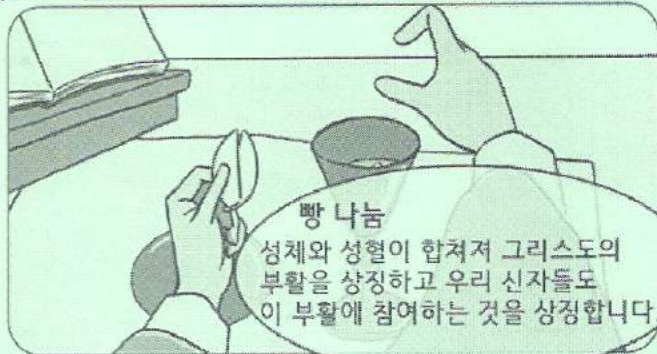
성령 청원 기도

두 손을 모아 떠 있는 동작은 성령을 전하는
전통적인 안수의 표시이며, 십자 표시는
축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빵 나눔

성체와 성혈이 합쳐져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우리 신자들도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축복과 파견

주님과의 일치
기원하는 인사를
마친 후 삶 속으로
파견되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께서
강복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진리를 기행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친밀한 대화는 언제나 몸짓과 말로 표현됩니다.” (YOUCAT 교리사, 182항)

'하느님'과 '하나님'은 다른분인가?

'God'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하느님, 하나님, 창조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가톨릭에서 쓰는 말이고, '하나님'은 개신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신앙인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하느님과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요?

하느님은 우리말로 하늘, 한자로는 천(天)의 존칭어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높은 하늘은 그것을 창조한 절대자를 상징하며, 인류 종교 현상 속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종교 표현입니다.

원래 가톨릭에서는 '천주님'이라는 말을 써오다가 1971년, 한국의 가톨릭과 개신교 학자들이 성서 공동번역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야훼를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제외한 개신교에서 이를 거부하며 천주교가 우상숭배를 한다고 오해하여 그들은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하나뿐인 신으로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그것은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으신, 절대자이신 그분을 다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하느님 아버지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뿐임을 믿고 그 이름에 우리 인생의 모든 희망을 둘 때 비로소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탈출 3,6)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로마 10,13)

Quiz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단어를 찾아 빈칸을 채우세요.

		지		창			느	
브							늘	
		엘		주			눔	
함			사				라	

2월12일자 정답: 성경 ①③ / 성전 ②④⑤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사회 교정 사

「성경 속 동식물」 07 하느님 자비를 드러내는 갈대

성경에서 갈대는 약자에 대한 하느님 자비를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되고 있다.

(이사 42,3; 마태 12,20)

예수님께서서는 믿음 없는 사람을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하기도 했으며, 반대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한 세례자 요한을 갈대의 꺾임에 비유하기도 했다.

(마태 11,7-11; 루카 7,24-28) 성경 시대에는 갈대를 건축재와 펜으로도 이용했다.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의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 (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래보험/장래적금/장래계획/모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TIMEOUT

Café +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집마-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렌스 세플베다길

## 뚜레쥬르

새해 고객 감사 이벤트  
1월 한달동안

\*조각 케익 2개 사시면 하나공짜  
\*케익 하나 사시면 \$5 off(쿠폰지참시)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밀반찬, 캐더링 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주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푸르덴셜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 (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 (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 중, 고, 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Heather Chong (정혜경) Lic#0I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